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복음의 씨앗 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각 부서에서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행사 준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구약의 초막절을 성경적인 뿌리로 하고 17세기 초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전통으로 하여서 시작된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은 어느덧 93주년을 맞았다.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를 통해 정해진 추수감사일은 본래 수요일에 지키게 되어 있었으나, 주일에 지키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는 견해들을 따라서 이후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진행하는 교회적인 행사들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다만 각 부서들에서 나름대로 몇가지 아름다운 행사들을 준비하여 실시하게 된다.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일과 생활용품을 나누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행사들이다(6면 기사 참조).

올 추수감사주일은 중헌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새 담임목사를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

득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창인 원로목사를 통하여 다져진 든든한 복음의 기초 위에 이제는 복음을 통한 삶의 온전한 변화와 순종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부 이상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키우고 하나님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신설된 5부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및 세계 선교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케냐선교정탐과 선교비전의 제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에 대한 강조, 물질에 깨닫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헌금 바로하기 운동, 찬송과 기도로 일어서는 새벽기도와 금요일집회, 일련의 영성훈련 등 말씀 위에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새로운 사람이 정직한 순종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계속되어 중헌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참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순전한 맘으로 예배하는 생활, 순종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에 집중되었던 눈을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두어지면서 우리들의 속사람과 교회가 성숙해가는 것으로 돌려,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여 가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서만수·육호기 선교사 해촉

교회는 지난 11월 12일 오후 8시 임시당회를 열어, 해외 선교 정책을 재수립하고 조정기 위하여 현재 파송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 자립 능력과 지역적 특성, 선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만수 인도네시아 선교사와 육호기 독일 선교사를 파송 후원 선교사에서 해촉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홍콩중헌교회의 윤용규 목사 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새가정부 + 예신부 '신혼가정부'로 탄생

기존의 새가정부와 예신부가 통합된 새 부서의 명칭이 '신혼가정부'로 결정되었다.

신혼가정부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녀와 결혼 후 신혼부부가 함께 참여, 각 상황에 적합한 주제에 맞춰 강의를 듣고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도록 새롭게 조정, 운용된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소와 새가정부에서는 현재 신혼가정부의 적절한 상황에 알맞는 말씀공부 커리큘럼 준비 작업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오늘, 4차 학습 및 세례식 다음 주일에 성찬식 거행

금년도 4차 학습세례식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거행되며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별도로 거행된다. 오늘 학습 및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지난 11월 2일과 9일 교회에서 정한 교육을 받았다.

한편 11월 23일에는 제4차 성찬식이 거행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찬양대 오케스트라 창단 준비

4부예배를 섬기는 아멘찬양대는 아멘오케스트라를 창단키로 하고 당회의 승인에 따라 창단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 매주일 140-150명의 찬양대원들이 섬기고 있는 아멘찬양대는 이번 오케스트라 구성(우리 교회 성인 찬양대 중 세 번째 창단)을 새로운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게 될 전망이다.

오케스트라 대원의 모집은 우리 교회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각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편곡자는 12월 7일까지, 오케스트라 대원은 12월 14일까지 모집을 마무리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연습을 가진 후 내년도 1월 첫주일부터 찬양을 드릴 계획이다.

이에 성도들은 아멘오케스트라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 이를 계기로 아멘찬양대가 더욱 영성이 넘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야겠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 : 1997년 12월7일(주일)까지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구내전화 356)
- 접수종류 : 성탄카드, 격려편지, 성탄선물(다시마, 야채가루, 쇠고기수프, 냉면, 라면, 즉석미역국 또는 북어국, 멸치, 과자, 그밖에 가벼우면서도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써 한국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의 온 찬양대가 함께 하는 제4회 중헌 찬양의 밤 11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찬 양위원회에서는 제4회 중헌 찬양의 밤을 오는 11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거행한다. 이번 찬양의 밤에는 총 7개의 찬양대(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시온, 호산나, 실로암)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크로마하프·만돌린 연주대, 핸드벨 콰이어 및 남성중창단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한다.

연주팀들은 찬송가를 포함하여

각각 2곡씩을 연주하게 되고, 전체 진행은 김성관 목사가 맡는다. 금요일집회 시간에 진행되는 이 찬양의 밤을 계기로 하여서 중헌의 온 찬양대가 계속적으로 영성이 넘치는 찬양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또 중헌의 온 성도들이 찬양하는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준비해야겠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교만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 (1)

(이사야 9:8-17)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을 받는다

복 방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1. 이스라엘의 교만

첫째로, 종교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둘째로, 인륜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본래 남방 유다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분단된 상태에서나마 서로 이해하며 통일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남방 유다를 삼키기 위하여 이방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으니 인륜상으로 크나큰 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멸주시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책망을 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고 새로운 복을 주겠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완악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지극한 화를 하셨습니다.

①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9절)

‘교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완악’은 악한 일을 뻔히 알면서도 선하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 줄 알고 고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② 하나님의 진노에 반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들은 돌로 쌓고 뿔나무들이 썩었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10절)

무슨 말입니까? “살던 집이 재앙을 만나서 무너진 것은 벽돌집과 뿔나무집이었기 때문이지만 이번에는 다들은 돌과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홍수나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손해를 많이 당했지만 앞으로 더 잘 살 자신이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반항입니까.

2.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형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

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니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11, 12절)

교만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보내십니다. 다윗 왕국이 둘로 갈라져 북방은 이스라엘이고 남방은 유다인데 이스라엘이 유다를 삼키려고 이방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극비 사항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맹관계에 있던 아람이 돌변하여 쳐들어오니 이스라엘로서는 이들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게 됩니다. 여기다가 아람은 블레셋과 동맹을 하여 앞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은 뒤로 쳐들어 옵니다. 본문에 그들은 입을 벌려 삼키려 한다고 할 정도로 사나운 적군이 앞뒤로 쳐들어 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여지없이 망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앞에는 아람군이 쳐들어 오고 뒤에는 블레셋군이 쳐들어 오는 진퇴양난의 때에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13절).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1)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14, 15절)

“머리와 꼬리”가 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망하는 데는 잘난 자나 못난 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머리로서 나라를 주장하며 호령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도 망합니다. 또한 “꼬리”도 망한다고 하였는데 꼬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백이므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세상의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나라의 방백이요 천국의 장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가정과 교회와 불신 사회에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에게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란 지혜를 말합니다. 선지자에게는 빛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책임을 알고 백성들이 복탄을 길을 알고 나라가 잘되는 길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위로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권능이 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탄식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변 사람들의 탄식감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자랑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재앙 대신에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와 지혜와 위로가 없으면 간판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거리에 던짐을 받아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권위와 지혜와 위로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권위와 지혜와 위로가 없으면 세상에서 꼬리로서 천대만 받을 것이고 절대로 머리 노릇을 못합니다. 꼬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세력잡은 장관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의 앞잡이 노릇만 했기 때문에 꼬리가 되었으니 결국은 머리와 꼬리를 하루 사이에 함께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충현교회의 사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 어디에 가나 권위와 지혜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하였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욱 좋아하여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백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정신으로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가는 교인 수보다는 세속주의로 흘러 주일에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놀러 가는 자들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을 따라가는 자가 많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리는 교인들이 많지 못하다면 이 나라의 국민도 역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실망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17절)

“실만”(褻慢)이란 방자하고 거만하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실만한 결과 장정은 전쟁에 나가 죽고, 과부는 욕을 당하다가 죽고, 고아는 굶어 죽으니 마지막에 빈터만 남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백성과 충현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애 끌려 미신을 따라갔습니다.

둘째로, 같은 민족인 남방 유다를 괴롭히고 이방 나라와 동맹하여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끝까지 코웃음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그까짓 재앙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들은 돌로 다시 집을 짓고 뿔나무집이 무너지면 백향목으로 집을 다시 지어서 살면 되니까.” 하면서 실만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결과 머리로 존귀한 자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인 꼬리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한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과부들은 원수들에게 욕을 당하다가 죽고,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요, 선지자들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탄식감이 되지 맙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면 불쌍해집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입에 탄식감이 되면 마지막에는 만물의 탄식감까지 됩니다(롬 8장).

제와 여러분은 탄식감이 되지 맙시다. 만물의 탄식감이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탄식감도 되지 말고, 오히려 자랑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재앙 대신에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THE GARDEN

(Isaiah 35:1-10)

The beautiful garden described in today's scripture passages relates to the coming Messiah and His promise of eternal joy. This chapter stands over and against the judgments described in the previous chapter. In chapter 34 the luxuriant land of Edom is transformed into a desert. In chapter 35 the barren desert is transformed into a splendor garden. God's power can curse beautiful land into a desert and bless the desert into a garden. His judgments and blessings are final and everlasting. Humans cannot duplicate God's workings. We can make an oasis in the desert and something desolate in the midst of beauty but it is only temporary. God alone performs eternal deeds and the deeds described in chapter 35 are eternal!

Not only that but only God can produce joy. We have a tendency to think we can make ourselves happy. Joy is a byproduct of the presence of God in His word. We may think that we can experience happiness without God but the reality is that we only experience an illusion of it. It is a very dangerous illusion that produces a false way of thinking and leads down the road to eternal punishment. God alone is the author of joy and the blessings of receiving this abundant joy and it is well illustrated in Isaiah's prophecy.

God wants to share His glory with His creation. Any attempt by us to produce our own glory will end in disaster. If we give God His glory, He will give His glory to us. His promise is, "The wilderness and the desert will be glad, And the Arabah wi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vs. 1). This is the beginning description of God's almighty power to change what is barren into fruition. This transformation produces joy and full development. God makes the infertile become very productive - very lovely.

This beautiful land that God created, "It will blossom profusely And rejoice with rejoicing and shout of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majesty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majesty of our God" (vs 2). God's blessings of this land are so tremendous and great that joy overrides with more joy. The usage of Lebanon, Carmel and Sharon are symbolic blessings of abundance. Lebanon denotes the beautiful area of cedar trees, Carmel is a flourishing mountain and Sharon represents the wondrous beauty of the plains. They poetically help to describe the turning of the desert into a marvelously cultivated garden. This kind of blessing is something only God can do. It's very similar to the transformation that takes place in our heart when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Everything ugly and sinful is regenerated into beauty and obedience.

The promise of this blossoming also offers encouragement to the faint hearted, "Encourage the exhausted, and strengthen the feeble. Say to those with anxious heart, 'Take courage, fear not. Behold, your God will come with vengeance; The recompense of God will come, but He will save you'" (vss. 3-4). God's judgment will befall those not found in Christ. He will severely punish the disobedient and unfaithful. Those who persevere and stand firm in their faith will receive His blessings - we will be saved from eternal damnation.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God's divine retribution is totally just - the faithful are blessed and the unfaithful are cursed.

This passage opens our eyes to the important understanding that God comes to us. In times of weakness, we think God is so far away and therefore He is unreachable. The truth is that God's presence is sovereign.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동산

(이사야 35:1-10)

오늘의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아름다운 동산은 메시야의 오심과 영원한 기쁨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4장은 기름진 에돔땅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는 심판을 묘사하는 반면, 35장은 이 사막이 훌륭한 동산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름다운 땅을 사막이 되도록 저주하실 수도 있고 사막이 다시 동산이 되도록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축복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일들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거나 아름다운 것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조작에 불과합니다. 35장에 기록된 영원한 능력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하고자 하는 행복은 사실 행복하다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착각은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하여,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축복을 이사야의 예언이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과 나누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자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 대신 비극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1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모의 땅을 풍요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충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이사야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2절)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줍니다. 레바논, 갈멜, 그리고 사론과 같은 지명들은 풍요로운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해 줍니다. 레바논은 상수리나무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갈멜은 숲이 우거진 산이고 사론은 경이롭게 펼쳐진 아름다운 평야입니다. 이 상징언어들은 사막이 변하여 놀랍도록 잘 가꾸어진 동산이 될 것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흡사합니다. 곧 추악하고 죄악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순종적인 것으로 중생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 약속은 낙담한 자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끄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3-4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불순종의 아들들을 엄히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에 견디며 굳게 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들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용하심은 공의롭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신실치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He is greater than all nations.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and all the people in the world who continue to oppress God's people will be held accountable before God. Although we experience sufferings from their persecution, God's righteousness will prevail. Just as Malachi prophesied "behold He is coming" in the ending of the Old Testament - we know that He came and is coming back again (Mal. 3:1). Our hope in salvation lies solely in Christ. Christ came to us and fulfilled His mission. He took all the sins of the world upon Himself and conquered death. Our only task is to accept His gift by coming to Him and sharing it with others through the Holy Spirit.

For the Lord is coming back! And when He does, certain things are going to happen, "Then the eyes of the blind wi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will be unstopped. Then the lame wi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mute will shout for joy" (vss. 5-6). Yes! The healing of all infirmities will occur. Just as Jesus assured John's disciples that He was the One by declaring that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so too does Isaiah's prophecy confirm God's powerful return (Luke 7:22).

We are totally undeserving of these great blessings. We need to recognize who we are and humble ourselves like Saul's grandson did when David showed his kindness for him and appreciate God's sovereignty as in the blind man from birth (2 Sam. 9:8; John 9:2). We need to understand as we walk in faith that God is with us, just as the Israelites knew the Lord was with them when He led them out of Egypt and through the desert into the Promised land (Jer. 2:6).

The power of God is so great. When we speak of the lame being able to leap like a deer, it reminds me of Peter's healing of a lame man. The helpless cripple sought money but Peter didn't have any silver or gold. What he did have was the power of Christ and he gave that to the lame man. The effects of that gift caused the man who couldn't walk not only to walk but to leap and praise God (Acts 3:8).

Christ's return will also influence the nature. "For waters will break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Arabah. The scorched land will become a pool and the thirsty ground springs of water; In the haunt of jackals, its resting place, Grass become reeds and rushes" (vss. 6-7). The lustrous growth of nature and the wondrous changes of those in Christ are both spectacular happenings that only God can bring about.

In this beautiful garden there will be a road leading to it - a very special road. "A highway will be there, a roadway, and it will be called the Highway of Holiness. The unclean will not travel on it, but it will be for him who walks that way, And fools will not wander on it" (vs. 8). This special road that God has buil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certain people. It is designed for Christians - those who have walked by faith here on earth and not by sight. "No lion will be there, Nor will any vicious beast go up on it; These will not be found there. But the redeemed will walk there" (vs. 9). Nothing bad or evil will be present on this road; only those found clean, pure, and faithful will be able to take the steps that lead towards their eternal home in the garden.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will return and come with joyful shouting to Zion, with everlasting joy upon their heads. They will find gladness and joy, and sorrow and sighing will flee away" (vs. 10). Our hope in Christ is not limited to this world but looks on towards the eternal (1 Cor. 15:19). We know and yearn for the day when Christ will wipe away every tear, erase all mourning, crying and pain and death will no longer exist (Rev. 21:4). The new garden we anticipate to spend our eternity is filled with delights that John reveals in Revelations 22:1-5.

The garden and its blessings are the kingdom in which we long to live forever in fellowship with God. It's available to all those who know that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gave us His only Son (Jesus Christ)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This is our invitation to rejoice eternally! Trusting in God's promise gives us the blessing of sharing His glory forever and ever. The unspeakable joy of the redeemed will be realized in the garden of eternal blessings! Amen!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압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에 "보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주께서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말 3:1).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할 바는 단지 그분께 나아옴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는 것이며 병어리는 노래하리니"(5-6절)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다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능력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였습니다(눅 7:22).

우리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므비보셋을 축복하였을 때 므비보셋이 자신을 낮춘 것과 같이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삼하 9:8; 요 9: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렘 2:6).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앓은병이가 사슴처럼 뛰는다는 말은 베드로가 앓은병이를 고쳤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불쌍한 절름발이는 돈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은이나 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베드로는 그 능력을 앓은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능력이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걸을 뿐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행 3:8).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연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냥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6-7절). 자연의 생동하는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8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특별한 길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그들은 곧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9절).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길을 걸지 못할 것이며 오직 깨끗하고, 정결하며, 신실한 자들만이 동산에 있는 그들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고전 15:19).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애통을 그치게 하시며, 울음과 고통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계 21:4).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동산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동산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요 3:16).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줍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은 영원한 축복의 동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

눈물을 드리는 감사주일

이준경
(강도사, 중동3부 지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을 무조건 명령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감사의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지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게 했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게 하였습니다(엡 4:22, 23).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요 1:12),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부럽지 않은 신분을 얻게 하였습니다(벧전 2:9).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인도로 선교하러 간 윌리엄 캐리를 비롯한 세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였습니다. 어느덧 성경번역이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성경을 번역해 놓은 원고가 들어 있는 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번역해 놓은 원고들이 한순간에 재로 변해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은 그 순간에도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영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오히려 인도 선교의 불길이 더 일어나게 되어 인도 선교는 더욱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히 13:15).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미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찬미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증거가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히 13:16).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 이전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미 6:6, 7).

오늘은 11월 셋째주일,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청교도들을 심히 박해하자 이들은 1620년 180톤짜리 작은 배인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60여일간의 긴 항해 끝에 그해 12월에 미국의 플리마우스에 상륙하였습니다. 추위와 기아와 질병으로 그들 중에 절반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음해 11월에 추수를 하게 되어 감격적인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국가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4년에 열린 ‘제4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제의하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의 3대 절기의 하나였던 초막절(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움)에서 유래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드릴 풍성한 제물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눈물이 있는 감사의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집트 및 케냐 선교지 답사기행-1 ☞

“가시덤불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이승림
(목사, 선교위원회·영어예배부 지도)

담 임목사님의 선교정책과 방향제시에 따라서 당회는 네 명의 아프리카 선교담당자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광현 장로님, 박영식 장로님, 김광남 장로님과 나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의 16일간의 일정으로 이집트와 케냐를 다녀오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난 지 17시간만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하였다. 우리들을 마중나오신 이준교 선교사님의 안내로 이집트에 머무는 나흘 동안 우리들은 이집트와 중동지역의 선교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몇 곳을 돌아보며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카이로는 도시화 현상으로 물려든 천 오백만의 인구와 심각한 자동차 매연으로 신음하는 모습이었다.

이집트의 종교적 상황

이집트는 회교국가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법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 실제로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기독교인들은 직업이나 세금법, 결혼법 등을 통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자녀들은 교육제도를 통하여서도 심한 차별을 받는다. 또한 오로지 회교도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회교도는 회교사원을 짓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981년부터 팔만개 이상의 회교사원이 지어졌다. 반면, 기독교인은 이미 세워진 교회의 화장실을 수리하는 일에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회교도들에게 대한 전도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이 회교도로 개종하는 일은 간단하다.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난을 회교도라고 고치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이집트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위계급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회교도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개종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든지 외국으로 이주해야만 한다.

이집트 선교의 가능성

이집트의 기독교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인구 6천만의 이집트인들중 기독교인들은 약 8백만명에 달한다(이집트 외의 중동 전지역을 망라해서 풀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작해야 2백만명 가량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집트의 중동내 선교적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8백만명 중 1%를 제외한 대부분은 로마 카톨릭교회와 흡사한 콥트교회(이집트정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었다. 우리들이 방문한 이집트복음주의신학교에는 중동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온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매우 귀한 인재들로서 교육을 받고 본국에 돌아 가면 교계의 역량있는 지도자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신학교 교장인 에크랄 박사는 여러 나라에서 유수한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나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또한 수단에서 온 4명의 신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준교 선교사님께서 학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었다. 그중의 한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이준교 선교사님께서 현재 이집트로 넘어온 수많은 수단 피난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권면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현재 카이로에 거주하는 수단 피난민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중이었다.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마치 가시덤불과도 같은 이 지역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우리들의 사랑이런 기도와 관심을 필요로 하였다. 일제의 압박과 설움을 당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토록 힘이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선교적 지원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생명 구원을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가난하고 미약한 교회들을 도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제 케냐로 향하였다.

▼ 공장 지역에서 목회하는 가달라나기브 목사 가족과 함께



취재수첩

유치부 성경이야기대회

유치부에서는 지난 11월 9일 1, 2부예배 후 교육관 205호에서 성경이야기대회(우측 사진)를 실시하였다. 바울과 실라, 나아만 장군, 용감한 다니엘, 삭개오, 어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정리하여 원고를 아이들로 하여금 외워서 발표하게 하였다.



에바다부

설립 9주년 기념예배 드려

지난 11월 9일 설립 9주년을 맞이한 에바다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학생반과 성인반이 연합으로 9시에 109호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또 특별히 준비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도 나누었다. 청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에바다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청각장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은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영아부에서는 이번에 성극공연뿐 아니라, 영아부 학부형이면서 동시에 영아부 선생님이로 수고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부르는 '가족창'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친구들은 과일그림을 그리고 정성껏 코팅한 것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 유아부

"이거 엄마가 싸준 과일이에요." 고사리 손으로 가지고 온 과일들. 사과랑 배랑 감이랑 수복해줍니다. 너무나 맛있게 생겼어요. 입에 군침이 막 돌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먹지 않아요. 다른 언니 오빠들이 가지고 온 과일이랑 한 데 모아서 춘천에 있는 소년원 오빠들에게 '예수님 이름, 예수님 사랑'으로 전해줄 거예요. 소년원 오빠들도 우리 예수님 사랑을 따뜻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 유치부

"엄마, 한복 꺼내 주세요. 나 예쁘지요?" 유치부 찬양대 어린이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벌써 세 곡이나 준비했지요. 그리고 모두모두 한복을 입고 오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 중등1부

준비해온 과일들을 가지고 아주 큰 과일 바구니를 멋지게 만들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는 특권을 맛보게 된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중등2부

'과일도 가지고 오고, 집에 쓸 만한 물건들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중등2부에서는 과일과 여러 생활용품들을 모아서 하남시로 갑니다. 거기에 '나그네 집(교회)'이 있거든요. 나그네 집은 장애인인 김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인데, 장애인 25명 정도가 함께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셨지요. 우리들도 좀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영과 육의 귀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진 / 이운구 기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 영아부

'수가성의 여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4교구 배우(2)들이 펼치는 성극이 영아부에서 전초전을 갖는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 11월 16일부터는 교구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찍지 않았던 제직들은 위의 시간에 맞춰 찍으시기 바랍니다.

* 시무장로와 교역자들은 다음 주일(11월 23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가족과 인도자는 '새가족석'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시간 중 광고와 새가족 환영의 순서를 빼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교회와 새가족부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가족들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새가족들에게도 교회의 환영을 받고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기 위해 오늘부터 본당 중앙좌석에 '새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가족과 인도자는 마음으로부터 반기는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새가족석에 앉아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가족석은 강대상에서 보았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잠깐!!

꼭 읽어 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새가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 남의 차 박치기 하고서 메모한 장 없이 슬쩍 도망가는 모습, 예배 중 의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하면 '늦게 온 주제에...'라는 듯 인상을 꺾는 모습(결국 그 사람은 마지못해 엉거주춤 일어나서 나중에 온 사람이 좁은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옆사람과 소곤대는 사람, 껌 씹는 사람, 팔짱끼고 채로 예배드리는 사람, 다리 꼬고 앉아서 앞좌석에 흠 묻혀놓는 모습, 예배 잘 드러놓고 식당가서 새치기 하는 모습, 옆사람은 찬송가가 없어 멀뚱하니 서 있는데 같이 보자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목청 터져라 찬송부르는 모습, 상하좌우로 목운동 열심히 하면서 줄다가 가끔 깨서 '아멘'하는 모습, 말씀은 안듣고 주보에 낙서만 하는 모습, 설교시간에 다른 책 보고 있는 모습, 향수를 들이붓고 왔는지 두통까지 물고오는 사람, 유아실이 있는데도 굳이 자녀를 예배실에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만드는 모습 등등..."

- 김순애,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 (두란노) 중에서 -

· 영어예배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 마음이 다 풀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영어예배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건강진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모아 주신 생활용품들을 나누는 기회도 가지지요.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 1층에 있는 가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이 귀한 일에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봉사자들 위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은총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 선교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이집트·케냐 선교 탐방을 담은 사진을 선교관에서 1층 계단 입구에서 전시한다.

총 현 게 시 관

당회원 차량은 제2교육관 지하 4층에 주차해 주세요

교인들의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져감에 따라 교회는 제2교육관 지하4층을 주차장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특히 당회원들은 지하 4층에 주차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각 건물들과 약간 떨어져 있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당회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이곳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부예배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5부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요한전도회와 베드로 전도회에 소속하신 남자 성도님들(세례자 이상) 중 안내위원으로 섬기실 분들은 예배위원회 지도 박경한 목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한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16일) 5부예배 후(오후 4시), 갈릴리홀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 및 대입시험을 치를 예정인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인도하는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